

인구와 사회

12주차

청년세대의 인구압박, 중장년세대의 노후

인구압박(population pressure)

1. 인구의 크기와 가용 자원과 관련된 개념. 한 지역에서 인구압박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는 말은 그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의 양에 비해 인구의 크기가 크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
2. 어떤 연령이 다른 연령 혹은 연령 집단에 비해 얼마나 크거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개념

30세 인구가 100명이고 생산연령대인 31~59세가 1000명이면 30세 인구집단은 10만쯤의 인구압박을 받음

1995: 20.3

2020: 35.0

30세가 31~39세에게 받는 압박

1995: 9.5

2020: 10.3

과거에 비해 인구압박의 강도가 높아짐

대학진학률을 고려해 인구압박을 산출하면,
대졸 30세가 대졸 30대(31~39)로부터 받는 압박 강도는:

1995: 7.4

2015: 9.9

현재의 서른 살은 1995년의 서른 즈음으로서는 상상도 못했
을 인구 압박을 겪고 있음

인구 압박이 있는 한 청년 취업 문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해 버티고 있는 앞 세대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이들의 무게가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를 막음

모든 연령대가 비슷하게 분포된 형태라면?

대졸자 등 질적 측면에서도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면?

→ 인구가 주는 압박이 사라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청년 일자리 사정 개선?

No.

1. 베이비부머가 퇴직하여 일자리 공백이 생기더라도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는 한정.
2. 적체된 대졸자 대기 인원

일본의 사례

일본은 2015년 이후 구직난에서 구인난으로 전환

1. 인구학적 원인 – 19세 인구 1991년 202만, 2009년 122만, 2019년 119만. 대졸자 수도 2010년 이후 감소
2.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낮은 거부감
3. 경쟁력 있는 제조업 – 매년 1%대 성장

한국에서 취업난 해소 시점은?

2030년 정도에 대졸자 취업난 해소 전망

2030년에 25~29세가 되는 사람들은 2001~05년생.

이때 매년 47만 명 정도 태어났으므로 이들이 대졸자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수는 35만 안팎

초저출산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즈음이면 한국도 구 인난 상황이 될 것

단, 경제규모가 수축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연령계층화(age stratification) – 사회적 자원이 모든 연령대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 연령층에 더 많이 분배되는
현상. 주로 인구 크기가 큰 고령층에 더 많이 분배되는 경향.

일본의 고령층 – 정년퇴직 후에 자산 보유액은 오히려 증가
은퇴할 때는 대출금을 갚고, 부채가 없는 상태
2000만 엔 정도의 퇴직금 현금
23만 엔 정도의 연금

사회복지 지출의 80% 이상이 고령층에(아동 5.5%)
국가재정 압박 – 국채 발행으로 감당

한국은? – 일본보다 더 열악한 상황

연금 지속가능성

부과식 vs 적립식

부과식 가능? 스웨덴 vs 한국 [도표3-3]

“나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나의 노후”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 자기계발

860만 은퇴 쓰나미 - 60년대생이 온다 | 시사직격 163회 KBS
230512 방송